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총장 황원찬 박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0
TEL 031-470-3333 FAX 031-473-5947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http://www.dtu.ac.kr

지저스타임즈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Westminster Graduate School Theology
이사장 한동숙 목사 총장 정인찬 목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준전대로 201-11 (중동 38-1)
Tel : 031)270-6000 Fax : 031)270-6060

| 이사장 : 조강수 | 사장 : 소진우 |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 대표전화 : 032-672-3031

www.JTNTV.kr (인터넷 방송)

제95호 2016년 1월 7일 목요일

사진제공 / 대한기독사진가협회 작가 이상중 목사

신년인사

유지경성(有志竟成)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고사성어 명언처럼 주 안에서 계획하신 일들이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에도 년 초부터 12월말까지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넘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저와 직원 일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2016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열어주셨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및 인터넷방송 JTNTV를 통해 국내 29개 지사와 해외 33개 지사가 복음전파를 위한 문서선교에 힘써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사명감에 불타는 독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신문과 JTNTV(WWW.JTNTV.KR)방송 직원일동은 독자여러분들과 여러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문서선교를 위하여 더욱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이사장 조강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국장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외 직원일동 배상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INGO-WGCA
WWW.INGO-WGCA.ORG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세계기독청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43:19]"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 WGCAF)는
비엔나 협약(조약 제 1089호-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국제연합기본협약(조약 제 1213호-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제기구 헌법을 이행 실천하는 기구입니다. 특히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및
한,미 FTA 제 18장 8조 외 무한 에너지(미국특허법 103조, 한국 특허법 106조 1항2호)를
바탕으로 녹색기술상품 실천기구 헌법을 허가 받아 수탁,등기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창조경제녹색기술상품' 을 전파하고 실천함으로써
전세계 환경을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는 실천 이행 국제기구입니다.

INGO-WGCA(WGCAF / GCA) is Committed to Promoting Green Technologies!
Earth and humanity, Animal and plant conservation... Green Revolution begins!
WGCA | INGO-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 세계녹색기후기구
INGO-WGCA On-line Office : INGO-WGCA.ORG

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세계기독청은 유일하게 본 국제기구 헌법에 세계 선교와 복음전파와 세계360개국에 교회를 세우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세계 각국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를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어느 나라든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기독청입니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세계기독청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대한민국과 피지에 거주하는 국제기구 설립 집행부 및 이사회는 이사진간의 5차례의 합동 회의를 통해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라고 명명되는 국제 비정부기구(INGO)입니다.
세계녹색기후기구 피지가 기후변화의 피해국가 중 하나이고 피지의 현재 수상이 유엔소속 130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되는 정부간 최대 기구인 G-77의 의장으로 내정된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인지함으로써 피지내 와 G-77일부국가에 헌법허가수탁 등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INGO-WGCA/INGO-WGCAF/W-GCA/(세계녹색기후기구-국제기구글로벌본부/운용본부/행정본부/72지원기구 행정본부/선물상품 행정본부)은 지적재산권자 또는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통해 지적재산권 사용 승인을 받아 그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일차특허/이차특허를 개발하고 이 특허들을 포함하는 녹색기술의 전파와 녹색기술 상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유엔 산하 지적재산권기구 WIPO에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된 국제표준 녹색기술 모두와 지적재산권 활용한 일, 이차 특허로 개발된 녹색기술상품 모든 제품은 전세계 국가에 수소에너지,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형태의 탄소배출이 없는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에 대한 미래연구, 개발, 생산 및 배포를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설립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규모 감소,
2. 이 지구와 우주 유, 무기체를 보존하고 더욱 녹색적이며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
3. 전 세계 대중 및 다음 세대에게 혜택,
4.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 생산과 사용 가능
5. 고용 창출과 빈곤의 감소
6. 에너지 확보를 위한 치열한 구제 경쟁 경감,
7. 국가 간의 평화와 조화 추구,
8. 전세계 모든 곳에서 군사 무기 또는 군비의 생산에 사용불가,
9. 인간의 진보에 대한 평화적 목적,
10. 무한 에너지, 에어엔진, 녹색기술실천, 소소에너지 등 실천,

강 요 셉 목사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세계기독청 대표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본부 지원의장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감찰수사본부장
복받는순복음교회 담임목사
010-7582-3927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세계기독청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프라임센터 20층(테크노마트)
동서울터미널 앞(강변역(2호선))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세계기독청 전화:070-4281-0010

謹 賀 新 年

허 식 목사
한국경찰청, 경목총회장

2015년은 저물어 가고 2016년이 밝아 오는 바톤 터치 의 시점에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1949년 미군이 철수하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 불법남침을 강행하여 2년 넘게 계속된 전쟁으로 온 나라는 폐허가 되고 말았지만 다행스럽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16개 국의 도움으로 잃었던 강토를 찾긴 했지만 자원과 문화와 기술이 열악한 우리 민족의 살길은 막막했다. 국민들은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힘들었고 삶은 피폐했다.

1960년대 5.16 군사혁명으로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잘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노래가 등장 하면서 농업근대화 기치를 내걸고 농경지 정리 고리채정리 화폐개혁 조국근대화 농공병진정책 산업의 근대화 의 물결을 타고 고속도로 건설, 월남파병 중동건설붐으로 중동으로 우리건설사와 근로자 파견, 독일 광부 와 간호사 파견 포항제철준공 조선소 건설, 울산비료공장,인천공항건설,등 현대화의 기초를 놓고 외화를 벌어 들였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시대와 민족의 정신사를 이끌어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이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고 봉사해야 할 것이다 선교 초기에는 예배당으로서의 교회 였지만 이제는 선교 한국으로 발 돋음하면서 이웃과 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는 교회로 탈 바꿈 하고 있다.

세계 10대 교회 중 4개 교회가 한국에 있는 만큼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세계를 품는 교회로 선교 한국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새해에는 자랑스러운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돌아보고 큰 기업은 작은 중소기업을 보살펴 주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아보고 고소득층과 고수익자들은 비정규직이나 무직자들을 위해 좀 내려놓고 사회적 균형을 이루는 우분투의 정신이 필요한 만큼 새해는 국가 간에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복지 외교 모든 면에서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발전하는 화목하고 화평한 복된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새해에 생명력 있는 지저스타임즈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한다.

조일래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2016년 희망에 찬 새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새 아침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추락한 한국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희생과 섬김의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무력 대결을 끝내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가 종교와 사상, 피부색, 빈부의 차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전쟁과 종교적 신념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테러는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어느 종교단체보다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시설 지원 등 대 사회봉사활동과 국가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교회 중심, 교단 중심주의와 교계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는 계속 하락하고 더불어 한국교회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한국교회연합에 주신 시대적 소명인 한국교회 턴‧업(Turn‧Up)을 반드시 이루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아침에 한국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모진 겨울을 이겨낸 나무들이 가지를 펴고 두 팔 벌려 하늘을 향하여 서듯,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같은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대각성을 통해 부흥과 성장의 재도약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지저스타임즈 애독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한 해는 지난 2015년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강건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아직도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2015년보다 더 나은 2016년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실 것이며 대한민국의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부흥과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빚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창조하시고나서 심히 좋았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것인데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에 우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댓가라도 감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온 우주의 창조주, 주권자,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신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고, 뭘 나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고 작은 것 때문에 선택했다고 하십니다. 가장 작은 것을 들어 가장 큰 것을 쳐야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것이'가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을' 들어 얼마든지 큰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201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요셉 목사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는 주안에서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 한국교회와 협력단체 및 기관 그리고 7,500만 남북한 동포, 750만 디아스포라 재외한인 교포여러분과 회원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말씀하심처럼 이제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 날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2016년 새해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구조적 부조화현상으로 고통가운데 살아가는 서민과 우리 이웃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희망과 기대,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役事)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2016년은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4월에 있기에 그 어느 때 보다도 국론 분열을 막는 한국교회의 역할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거혁명이 가능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기도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구촌 곳곳에서 나름의 이념과 신념의 구현을 빌미로 벌이고 있는 참혹한 전쟁과, 테러를 종교적, 국수적(國粹的) 이유와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와 논리도 단호히 배격하며 새해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구촌에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2016년 희망에 찬 새해 아침에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과 한국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영훈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2016년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반목과 갈등, 불화와 분열을 넘어 이제는 화목과 화합,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도약할 때입니다. 화해, 일치, 연합의 시대를 열어갈 때 남북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목은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핏빛 사랑으로 화목의 길이 열렸습니다.

화합을 위해서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난해서는 안되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의심하는 것도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롬14:3)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사회에 화합은 꽃피게 될 것입니다.

연합은 꿈을 현실로 이루어 가는 과정입니다. 소망과 비전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하나의 공통된 희망이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더 높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그리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연합하고 함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치는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온전한 일치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그의 모습을 닮아 사랑의 삶을 사는 2016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희망의 2016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하며 축복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민경찰연합회, 목포경찰서 의경 위문행사 가져

목포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상복)에서는 지난 28일 목포경찰서를 방문하여 119방범순찰대·112타격대를 위문하고 라면 40박스 전달 행사를 가졌다.

목포시 시민경찰연합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며 목포시 치안을 지키는 목포경찰서 의경들을 위문하여사기를 돋아 주고 있다.

시민경찰연합회 회장 김상복은"이번 위문을 통해 치안 유지에 고생하고 있는 의경들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따뜻한 격려를 했다"면서 "민경 협력치안체계를 유지하여 목포시 치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조강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謹 賀 新 年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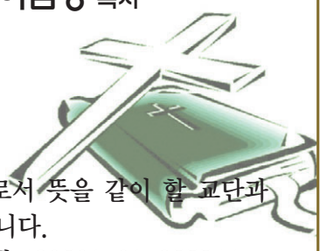
예배안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 일	오후 3:00	푸른초장기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기 도 실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 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중고등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한보협은 보수교단으로서 뜻을 같이 할 교단과 단체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430501-01-255544
(사단)한국보수교단협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7길 25. 6층
(화곡동 호용빌딩)
☎02)2608-2190, Fax 02)2608-2191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 수 영 목사

- 한국여목성장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타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 예 배 시 간 안 내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36-5(효목동) 3층 우)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에녹부흥신학원

대 표 곽영민 목사 / 학술원장 이재갑 목사 / 이사장 배정희 목사 / 총동문회장 주찬양 목사 / 사무국장 김영애 전도사

이 사 진

곽에스더 목사 주찬양 목사 최건숙 목사 한사라 목사 정기남 목사 전미리 목사 김정남 목사

교 수 진

조직신학/부흥사학 곽영민 교수 / 복음과율법 박형모 교수 / 교회음악 김성기 교수 / 히브리어 박경자 교수 / 기독무용 김창숙 교수 / 제자양육 이환호 교수
영성학/요한복음 주찬양 교수 / 상담학 곽홍선 교수 / 회개복음/목사학 장만천 교수 / 성령론 제갈요한 교수 / 찬송이론/실기 전정애 교수 / 복음송이론/실기 최사랑 교수

http://kiea.onmam.com
◆ 수업일 : 기독예능과정 - 매주 목 오후2시 - 오후5:30분.
금, 토 오전 10시 - 오후6:10분.
신학부 · 연구원 - 매주 목, 금 오전 10시 - 오후6:10분.
토 오전 10시 - 오후2시.
학술원 : 매주 토 오전 10시 - 오후2시.
찬양교실 - 매주 목 오후2시 - 오후5:30분.
※과정 통신으로 교육할 수 있음.
• 장소 : (인천)등불교회.
• 주소 : 인천 광역시 남구 능해길 5(구, 숭의1동 441-45)
☎ 문의 : 010-6778-0651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세계기독청 본부재단 총본부장 강요셉 목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구이다. 이 기구가 창립된 배경은 국제기구 산하 세계기독청, 선교본부가 만들어져 있다. 또한 코리아유니버시티 안에 신학대학이 포함되어있다.

주의 종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기독청과 선교본부가 있으며 장점은 선교가 주목적이다. 즉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좋은 점들이 많다. 신앙적으로, 또는 주의 종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익자체가 보장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좋은 점들이 너무도 많다. 주의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서 좋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를 갈지라도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본사의 헌법은 기독교에 관한 신앙의 자유권이 있어서 외국에 나가 선교활동 하는데 있어서 그 나라에서 신변보호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화동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는 국내에서도 외국에 나갈 선교사들도 이곳에 등록하면 그에 대한 안내와 신변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구에 대한 좋은 브랜드자체를 신뢰하고, 본 국제기구 녹색기구는 파송되는 기관선교사의 임명장과 기관목사의 임명장을 수여하고 외국에 나가 선교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본 녹색기구는 교파를 초월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력과 검증을 통하여 이단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

또한 현재 각 교단별로 파송을 받아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이메일을 통해 본 기구에 대해 홍보를 하고, 뜻을 같이 하겠다는 선교사는 국제기구의 임명장을 수여하고 활동하는데 협력할 방침이다. 국제기구는 교단은 아니기 때문에 파송 받은 교단에서 활동을 하되, 국제기구에서 바라는 것은 본 기구에 소속된 임명장을 받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나라에서 선교활동 할 수 있는 알선과 신변보호를 받게 된다. 국제기구의 임명장을 받고 파송되었기 때이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임명장에는 업무수행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기구의 헌법에 준수한 사항을 보면 "선교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역을 선교사가 담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각 교단과 각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은 하고 있지만 신변보호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제기구에서는 신변보호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2~3년 후부터는 본 기구에서도 선교사의 신변보장과 생활비를 지원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기총, 총무협 제15차 신임회장에 신언창 목사 선출

무너진 정체성 쇄신과 위상을 회복하고, 한기총 발전에 최선 다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17일(목) 오전11시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31길 한빛선교교회(김경만 목사)에서 개최되어 신언창 목사(웨신총회 총무)가 제15차 신임회장에 당선되었다.

정기총회에 앞서 서기 김경만 목사(개혁총회 총무)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부회장 강세창 목사(합동동신총회 총무)가 기도를, 회장 황연식 목사(호헌총회 총무)는 행10:25~26절을 중심하여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서기 김경만 목사의 인사 및 광고가 있은 후 직전회장 정춘모 목사(합동개신 총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제15차 정기총회가 진행된 가운데 임원선거에서 신언창 후보가 21표를 얻어 16표를 얻은 최정봉 후보를 누르고 신임회장에 당선되었다. 이어 부회장 선거에서 김경만 후보 29표, 김명식 목사 24표, 엄만동 목사가 13표를 얻은 결과 29표를 얻은 김경만 목사가 제1부회장, 김명식 목사가 제2부회장에 선출되었다.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신언창 목사(웨신총회 총무), 제1부회장 김경만 목사(개혁총회 총무), 제2부회장 김명식 목사(기하성 순복음총무), 김진옥 목사(예감웨슬레총회 총무), 이탁규 목사(합동개혁총회 총무), 김영신 목사(합동개혁총회 총무), 서기 이화평 목사(합동국제 총무), 부서기 김정택 목사(개혁정통 총무), 회록서기 설상문 목사(한반도복음화중앙협의회 총무), 부회록서기 이종복 목사(합동연합 총무), 회계 조영미 목사(개혁혁신 총무), 부회계 박진섭 목사(예감단체연합 총무), 감사 이영욱 목사(합동보수 망원측 총무), 성경모 목사(합동진리 총무) 등이다.

총무협의회 제15차 회장에 당선된 신언창 목사(웨신 총무)는 "훈훈하고 따뜻한 총무협을 만들어갈 것이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총무협을 대표성 있는 협의회 기구를 만들고, 동 협의회의 구겨진 이미지를 되찾고, 무너진 정체성 쇄신과 위상, 훼손된 명성을 회복하겠고, 따라서 본 협의 친목과 화합을 통해서 연합과 협력 사업에 적극 이바지 할 것이며, 섬김과 나눔을 추진해 가면서 세미나와 간담회를 갖고 만남을 통해 친교를 자주 갖고 소통의 길을 여는데 힘쓸 것을 약속"했다.

김삼환 목사, 29억 6천만원 퇴직금 사양

"교회 개척, 불우이웃, 소외된 곳을 위하여 전부 써 달라"

지난 12월 말로 35년 6개월의 명성교회 목회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김삼환 목사가 전별금 29억 6천만원을 사양한다고 밝혀 사회와 한국 교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 목사는 당회가 결의한 전별금 29억 6천만원 전액을 사양했다. 지난 12일 새벽기도 후에 열린 제직회에 이어 지난 22일 주일저녁 예배 후에 열린 공동의회에서 예산안 보고 중 전별금에 대한 건이 나오자 거듭 이를 사양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전별금 전액을 명성교회 교인 중 어렵고 힘든 교인들을 위해 10억원을 사용해 줄 것과 명성교회 부목사들 중에서 교회를 개척할 경우 지원금으로 10억, 우리 사회 소외된 곳을 위하여 9억 6천만원을 사용해 달라며 당회에 당부했음을 밝혔다.

김삼환 목사는 매주 월요일 오전 명성교회에서 열리는 통일을 위한 월요기도회에서 '평화통일 코이노니아'를 인도하는 중에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슬픈 사연을 털어놓았다. "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지만 결국 죽었다. 그런데 병원비가 7,000원이 나왔다. 가난한 전도사에게는 큰돈이었다. 돈이 없다고 사정을 했고, 결국 병원에서 그냥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다."며 "(죽은) 아들을 지게에 지고 교회 집사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묻었다."고 아픈 사연을 소개했다. 김 목사는 이어 "당시 사례비를 받지 못해 풀빵을 만들어 팔아서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김삼환 목사가 전별금 29억 6천만원 전액을 교회를 개척하려는 부목사들과 생활이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 소외된 곳을 위해 사용하라고 내놓은 것은 가난과 병마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일 것이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목사님께서는 밖으로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어떻게 기사화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왕에 알려진 것 정확하게 알려드린다. 이를 계기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삼환 목사는 지난 27일 명성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관악경찰서 성탄감사 축하예배 드려

관악경찰서 교경협의회는 지난 12월 23일 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300여명이 모여 성탄축하예배를 드렸다. 양정섭 경목실장의 인도로 상임회장 조준현 목사가 기도, 관악경찰서 기독신우회의 특별찬양, 서울순복음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서울순복음교회 조규봉 목사는"큰 기쁨의 좋은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1. 나라의 안정과 평화, 대통령을 위하여 최인광 목사(은천제일교회 경목), 2. 관악경찰서장과 전 직원을 위하여 김인환 목사(명성교회)가 특별기도를 가졌으며, 유진규 관악경찰서장은 경찰교회 담임 서동선 목사에게 감사장을 전하고, 교경협의회 상임회장 조준현 목사는 모범경찰관 10명에게 감사장과 상품을 전달하고, 방범대장과 방범순찰대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서장 유진규 총경의 인사말씀과 목림교회 노성수 목사의 광고와 서울순복음교회 조규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모범경찰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경사 김기태, 경장 김강엽, 경위 박권팔, 경장 박성훈, 경위 오길용, 경위 엄수목, 경위 유정환, 경장 유동식, 행정관 신수자, 경위 장지욱 등이다.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보수

표어 :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총회(행9:31)

할렐루야!
2016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총회, 말씀과 기도로
총회발전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총회장 이규필 목사 외 임원일동

2016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신년하례식
● 일시 : 1월 7일(목) 오후 1시30분 ●장소 : 동천교회(총회장 이규필 목사시무)

총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칠 박사 (천복교회)

경남신학원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부총회장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서기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부서기

주지광 목사 (사천대곡교회)

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회의록부서기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회계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부회계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총무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 합동보수교단 소속 신학교는 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 석 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 호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 규필 목사

서울신학연구원 학장 박 영석 목사 서울시 은평구 신사1동 20-168 H.P 010-5325-3893

가정예배

2016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소망있는 삶이란
성경: 시편 16편 11절 찬송가 413장

생명의 길 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란 즐거움은 세상에서 잠시 잠깐 맛보는 그런 즐거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있기에 그 부활시에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 미련도 없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확신없는 삶은 두려움뿐입니다.

제목: 나의 울부짖음과 기도가
성경: 시편 17편 1절 찬송가 367장

울부짖음은 기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면서도 기도의 간절성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직성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만할 것도 없고 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게 될 것이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목: 순종한 의로운 자의기도
성경: 시편 17편 2절 찬송가 298장

다윗은 자신의 진실되고 의로운 행위를 근거로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의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상달되어 응답의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 의와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쫓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제목: 흠이 없는 사람
성경: 시편 17편 3절 찬송가 144장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뿐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서도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여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면 죄 없는 인간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속 인물 중 다윗이란 인물은 하나님이 인정했고 하나님과 함께 일생을 산 인물중 한 명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눈 앞에 흠을 찾지 못하겠다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제목: 내가 서 있고 가야 할 길
성경: 시편 17편 4절 찬송가 200장

본절의 포악한 자의 길은 살인이나 강도 등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이것들은 가장 일반적인 악으로서 모든 악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악을 피하였는데 이는 주의 입술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영적 길이 어디인가 살펴봅시다. 내가 가야 할 길과 서 있는 길에서 분명한 자는 결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목: 적극적으로 해야할 2가지
성경: 시편 17편 5절 찬송가 346장

다윗은 소극적으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길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기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는 말은 신명기 등에 언급된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거룩하여 집니다. 기도와 말씀에 균형 잡힌 삶으로 우리의 영적 삶을 날마다 지탱과 성장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성경: 시편 17편 6절 찬송가 424장

다윗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에 앞에 붙는 수식어는 항상, 힘써, 매일 이라는 수식어가 주로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할 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낙심치 말고 의심치 말고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 할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듯 영적 호흡인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제목: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 시편 17편 7절 찬송가 587장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 백성에게 이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되 특별히 핍박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내심으로써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자격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 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이 내 삶에 실현되어 내 가슴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성경: 시편 17편 8절 찬송가 498장

다윗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여 드린 모세의 찬양을 자신에게 적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세상 살면서 가진 것은 없고 남보다 내가 비참해 보일지라도 나의 전능자 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그분 날개 아래 거한다는 확신이 있는 삶이라면 결코 남과 비교되지 않으며 당당하게 이 삶을 헤쳐 나가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사방이 막혀 압제 속에서
성경: 시편 17편 9절 찬송가 394장

본절은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취하려는 원수들의 잔인성을 말해 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방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악인과 어려움들을 생각해보면 어느 한 순간에 숨쉬기 힘들 정도로 터지기도 합니다. 일어난 일이 반복되고 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도울 사람은 없지만 도울 주님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서남북이 막혀 있을 때 위로부터 오는 도울 주님을 기억합시다.

제목: 어리석은 자는
성경: 시편 17편 10절 찬송가 285장

악인들은 자신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다윗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악은 저들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더욱더 큰 죄악들을 두려움 없이 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이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주제를 안다면 교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행하는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아닌지 돌아볼 줄 아는 미덕 있는 사람이 됩시다.

제목: 삼킬자를 찾을지라도
성경: 시편 17편 11절 찬송가 190장

노려보고라는 말은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자와 같이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사탄이 믿는 자를 미혹하는 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우리를 미혹케 하는 영이 우리를 향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별해야 할 것이며 기도로 대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성경: 시편 17편 12절 찬송가 261장

다윗의 원수는 사자에 비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수들의 잔인성 때문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러한 비유를 통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위기의 급박성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급박 속에서 우리는 놓치고 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의 칼
성경: 시편 17편 13절 찬송가 303장

본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대항하여 싸워달라는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전능하신 군사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주의 칼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항해서 싸우실 때 사용하시는 무기로서 심판의 칼을 의미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내가 편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칼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명심하며 하루를 살아도 당당히 살아 나갑시다.

제목: 성공의 기준은
성경: 시편 17편 14절 찬송가 402장

본절에서의 사람들이란 이 세상에 사는 기간 동안에만 분깃을 누리는 자, 곧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저들은 영원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점검합시다. 부와 명예 이 세상 기준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부를 많이 축적한다 한들 주신 이를 기억못하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저주가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도 나눌 수 있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주여 얼굴을 드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다(민16:26).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과 팩트가 다를 때가 종종 있다. 비행기를 타고 창공을 나를 때에 느낌은 비행기가 날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고속으로 비행중이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느끼는 것은 다르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사랑을 느끼지는 못한다. 하나님도 우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임재는 다른 것이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있다. 살다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실 때이다.

이와 같은 때가 되면, 우리는 드러누워 있기조차 힘이 든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서 멀리 숨어버리시는 때이다.

프로이드 맥클링이란 사람은 하나님께서 숨으실 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어느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 느낌이 사라졌다. 기도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악마를 꾸짖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행동을 한다.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닌다.

그리고 금식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며칠? 몇 주? 끝은 날까? 나의 기도가 천장에 튕겨서 도로 떨어지는 같다. 절망 속에서 우린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소리친다."

이와 같이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나 자신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창공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건강하고 용감한 새 중의 왕인 독수리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어느새 이미 받은 영성이 바닥을 드러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 물이 없는 드럼통에 소리만 요란한 것처럼 우리의 영성은 바닥이 났는지도 모른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때이다.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에게서 바닥난 영성을 알게 하신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혹독한 슬럼프를 지나야 비로소 나를 알게 된다. 그리고 일(=사역)이나, 형통이나, 축복이나, 승리의 순간보다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바닥난 영성을 경험해 봐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 기도가 안되 봐야 기도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영적을 헤매어 봐야 영적을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게 된다. 영적 슬럼프가 주는 유익은 의외로 많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이며 교제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망(?)치게 하시거나, 안되게 하시거나, 사역을 어렵게 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를 가까이 두고 교제하려 하심이다. 당신이 지금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 일을 포기할 수 있어야한다(단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어쩌면 자신의 만족을 위함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에 우리에서 얼굴을 돌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일을 더 좋아할 때에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떠난 것은 아니다. 단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게서 나온 것은 골라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사용하신다.

박형휘 목사
성현교회

소진우 목사 2015년-2016년 성회일정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컬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컬럼리스트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월
2 한얼산기도원철야(이영금 원장)
4 안양광은교회(이동환 목사)
5~8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12~14 온양풍기교회(백현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9~21 길신교회(김동환 목사)
25~28 답십리침례교회(최종호 목사)
3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15년 2월
2~5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9~11 원천교회(최성근 목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6~19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3~25 대구중앙교회(양원영 목사)

2015년 3월
축복심방의 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4월
30~2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6~10 선교지사역자세미나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3~14 정기노회
19~25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27~29 능곡명성교회(송한철 목사)

2015년 5월
4~7 영광교회(주은석 목사)
7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 원장)
1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0~20 봄철부흥성회(예복교회)
25~27 소망교회(김주영)
28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015년 6월
1~3 진접교회(송일육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8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18 오산리금식기도원(함덕기 원장)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비젼교회(김원우 목사)

2015년 7월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6~9 에스겔기도원(김양선 원장)
13~16 김해베델수양관(이순자 원장)
20~23 반석기도원(김명숙 원장)
27~30 에덴금식수양관(양화옥 원장)

2015년 8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7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0~13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20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4~27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9월
31-1 언론사 연수원 수련회대표회장(조강수 목사)
1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함덕기 원장)
3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7-11 온누리복음화(엄기호 총재)
14-15 교단총회
14-16 군자대현교회(이희수 목사)
20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21-24 임직후보자교육
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15년 10월
6-8 성산교회(정재구 목사
12-13 정기노회
18 새빛교회(장동술 목사)
19-21 영광교회(임승원)
25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5-29 가을부흥성회(예복교회)

2015년 11월
2-5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
9-11 성일교회(강인원 목사)
16-18 횃불교회(황인준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3-25 영신교회(박조영 목사)

2015년 12월
30-4 미얀마선교지방문
7-9 샬롬교회(고정임 목사)
14-16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최낙현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8-30 반석교회(권승일 목사)
31 예복교회 송구영신예배

2016년 1월
4 - 8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11 - 13 흰돌교회(신현덕목사)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8 - 21 에덴교회(양화목목사)
24 - 27 선일교회(이판석목사)

2016년 2월
1 - 4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8 - 11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5 - 17 대구열린문교회(류창호목사)
22 - 26 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3월
봄철축복대심방의달

2016년 4월
4 - 6 세광교회(윤주후목사)
10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1 - 12 정기노회
18 - 20 수도교회(신순철목사)
25 - 27 산돌교회(김진성목사)

2016년 5월
2 - 5 영광교회(조강수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9 - 11 한우리교회(윤훈종목사)
5 - 18 예복교회 봄철부흥성회
23 - 25 소망교회(강병진목사)
30 -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16년 6월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6 - 8 사랑교회(최용석목사)
13 - 17 선교지사역자영성대회
27 - 30 사랑제일교회(오만곤목사)

2016년 7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1 - 13 모리아교회(조선의목사)
17 - 23 심야기도대성회(예복교회)
25 - 28 에덴금식수양관(양화옥원장)
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16년 8월
10 - 12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5 - 18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2 - 25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9 - 1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새해 새소망
2016년 새 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모님들의 쉼터 제11회 정기모임

목회현장에서 남편 목사님들의 가장 절친한 동역자인 목회자 아내들

모임인 사모님들의 쉼터 카페의 11번째 정기모임을 지난 11월30일(월)-12월1일(화)까지 1박2일간 충북 옥천군 장령산휴양림 입구에 위치한 나목미션하우스에서 가졌다

총진행을 맡은 이미자 사모 인도로 개회예배에 한귀숙 사모의 기도 후에 행복샘교회 당회장 박수영 목사는 이사야 43장1절을 중심으로 "나는 사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나는 사모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산이 떠나가도록 소리치십시오, 사모의 자리, 사모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 생각 하나요? 사모는 목회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평신도는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때론 목사로, 교사로, 간혹 선교사가 되기도 한다. 사모는 교회에서 흔히 불리는 직분, 그 어디에도 잘 속하지 않는다. 사모는 어디에도 끼어들 곳이 없다. 그런데도 약방의 감초처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이다. 어쩌면 남편인 목사보다 더 많이 울고 더 아픔이 크고 힘들어 한다.

사모의 정체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여건 환경 처해있는 상황에만 빠져서 좌절과 낙망치 말고 하나님께서 사모로 부르셨다는 확실한 소명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켜 나가자고 사모님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개회예배 후에 이어진 특강으로 이효숙 사모님의 "사모가 하는 성경공부" 어떻게 인도 했는지 사례와 간증 시간을 가졌다. 아나바다 바자회에서는 안쓰는 물건들로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현장에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살펴가며 고르는 사모님들의 알뜰함을 누가 따라갈 것인가?

저녁 식사 후 이명순 사모(다음카페 사모님들의 쉼터 카페지기) 진행으로 "기름부으심을 위한 기도회"있었다. 목회 여정 속에서 시커멓게 타버린 가슴을 부여잡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성기도를 드렸다. 침체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일어서서 이 땅의 황무함과 죄악들을 회개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사모들이 있기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음을 확신한다.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사모들의 기도는 다음날 아침 식사 후 9시부터 다시 계속되어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목회자의 아내만큼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직분은 없다. 명칭은 사모로 불리지만 남편처럼 앞에서 드러나게 사역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그 또한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혜롭게 사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보다 더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리 또한 없다. 지혜와 능력으로 충성스럽게 목회자 사모로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 영광이 있는 것이다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시작된 모임은 이제 서로의 고민을 넘어 사모님들과 교회의 대소사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중보기도모임 중 하나로 발전했다.

사모님들의 정기 모임은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있는데 올해엔 조금 늦은 초겨울에 모임을 가지다 보니 월동준비에 바쁜 관계로 41명 참석하여 "마라나타" 주제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서 기도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 드리며 서로를 보듬어 주고 감싸주며 어려운 처지의 사모들을 위로와 격려 속에 다시 일어서게 하며 우리는 하나임을 보여준 사모님들의 쉼터! 그 자체였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 붙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름다운 화음의 찬양으로 1박2일의 사모님들의 쉼터 열한 번 째 정모가 막을 내렸다

대구지사 박수영 목사

경찰청 · 한국경목총회 위촉 및 대상 시상식

경찰청 · 한국경목총회(허 식 총회장)는 지난 24일(목) 오전 10시 40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대한민국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성탄축하 및 송년회를 열고, 1부 예배, 2부 영등포경찰서장 포상 및 모범경목 위촉과 대한민국 대한국인 대상 시상을 가졌다.

1부 예배에서 증경회장 엄신형 목사는 이사야 41:10절을 본문으로"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란 재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1.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김진영 목사, 2.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박용숙 목사(협동총무), 3. 대한민국 경찰을 위하여 유진기 목사, 4. 경찰기독일보, 경찰기독신문사의 문서선교를 위하여 황세한 목사, 5. 경찰청 · 한국경목총회를 위하여 이정근 목사, 6. 반동성애 및 기독교 문화를 위하여 구성문 목사, 7. 경제와 국민 안정을 위하여 노홍근 목사 등이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날 경찰청 · 한국경목총회 총회장 허 식 목사는 영등포경찰서 서장 김갑식 총경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서장 김갑식 총경은 (사)대한민국경찰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최현기 목사, 경찰청 · 한국경목총회 부회장 박동호 목사, 협동총무 박용숙 목사, 이사 이춘우 등에게 포상했다.

이어 (사)대한민국경찰청복음화협의회 총재 이정춘 목사가 환영사를, 직전대표회장 송기배 목사의 이임사, 대표회장 최현기 목사의 취임사, 고문 전용만 목사, 경찰청 · 한국경목총회 사무총장 홍항표 목사가 격려사를, 고문 하태초 장로의 축사, 찬양사역자 서성은 집사의 축가, 사무총장 장복현 목사가 광고를, 이정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보협, 1박2일 '2015 송년 기도의 밤' 열어

49개 교단 및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나라와 민족, 평화통일 위해 기도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인하 · 한기보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지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간 경기도 여주시 매룡2길 여주 성산기도원(원장 문제선 목사 / 예장, 사명자 총회장)에서 49개 교단 및 기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2015 한기보 송년기도의 밤'을 가졌다.

첫날 오후 3시30분에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정명구 목사(대한예수교 오순절성회 총회장)의 기도, 고광원 목사(예장, 연합총회 총무)가 성경 사38:15~17절을 봉독하고,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박 상임회장은 말씀을 통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하고 뭉치기만 한다면 한기보는 대한민국 교계의 중심에 우뚝 설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한국 교회의 신앙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고, 성령충만, 말씀충만, 은사충만한 구심점이 되도록 기도하여 한국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기보가 힘써나가자"며 전언했다.

이어 상임고문 지왕철 목사의 인사말씀과 축도가 있은 후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예장, 예신총회장)의 사회로 '2015 한기보 송년기도의 밤'이 진행된 가운데 1) 나라와 민족(경제 · 청년 일자리)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곽정신 목사(예장영신 증경총회장), 2) (사)한기보와 회원교단, 단체를 위하여 한홍교 목사(예장호헌 총회장), 3) 차별금지법, WCC반대, 동성애와 좌파 퇴치를 위하여 신한철 목사(예장합동제일 총회장), 4) IS 및 테러조직 퇴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 이단 퇴치를 위하여 이규상 목사(예장개혁 증경총회장), 5) 한국교계와 선교, 성산기도원을 위하여 이상원 목사(협의회 서기)가 각각 특별기도회를 갖고 협의회 증경대표회장 남성운 목사의 축도로 (사)한기보협의 '2015 송년 기도의 밤'의 모든 순서가 종료됐다.

언부협 총재 故 이효은 목사 주님의 품에 잠들다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및 언론부흥사협의회(이하-언부협) 초대 총재인 고 이효은 목사가 지난 9일 0시 22분 7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셨다.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명지병원 장례식장 특9호실에 빈소를 마련하고 예장합동 총회 서서울노회(노회장 오덕주 목사)가 장례위원을, 화정충현교회(당회장 임민철 목사)가 준비위원을 맡은 가운데 서서울노회장으로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순으로 거행되고, 한국경찰청, 경목총회와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공동으로 환송예배를 집례하였으며 사무총장 홍항표 목사가 집례를, 부회장 김창룡 목사가 기도를, 총회장 허 식 목사의 설교가 있은 후 신문방송 언부협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고 이효은 목사는 1944년 전남 순천에서 출생하여 최문자 사모와 결혼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또한 서석초교를 비롯 한양대학,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미국 필라델피아 훼이스신학대학원(D.D.), 서서울노회 노회장 역임, 예장합동 총회부흥사회 22대 대표회장 역임, 화정충현교회 원로목사, 지저스타임즈 고문, 언론부흥사협의회 총재를 역임하면서 신문방송을 통한 문서선교에 힘써왔다.

- 2016 祝 謹賀新年 -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대한노회

노회장
장 한 국 목사

서 기
박민규 목사

회의록서기
김정미 목사

회 계
박종연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 사무실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대림프라자, 고흐 7층) 전화 : ☎ 031)424-7612
노회장 : 장한국 목사 서기 : 박민규 목사 010-9621-9627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 11:19~20)

담임 장한국 목사
예장개혁 총회장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학생회	토,오후 5: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청년회	토,오후 6:00
새 벽 예 배	새벽 5:00	여전도 구역예배	금,낮 11:00
금요철야예배	밤 9:00	남전도 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00

◇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촛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 있는 교회
설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16039)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 http://jlcn.kr ☎ 031)424-7621, H.P 010-4436-7060

성막 영성"구원 서정의 5단계"2

살아있는 신앙, 영성이란 무엇인가?

2. 영성의 정의

영성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것의 주체가 사람으로 잘못 생각해왔다. 그러나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지켜나갈 대상이 인간이지, 인간들이 영성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인간들은 다만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며 살아나갈 피사체일 뿐이다. 어디까지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합일체(合一體)가 되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뜻대로,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성(성품)이 나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영'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를 가진 물질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기(氣)'의 실체이다(창 2:7).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는 '영'들 중에는 선한 영과 악한 영들이 있고, 이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럼 어떤 영이 선한 영이고, 어떤 영이 악한 영인가?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1 계명에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다. 즉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진리가 아니므로 모두 악한 영에 속함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 태초에 그분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었다. 사람들이 신으로 부르는 우상들은 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타락한 악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단어들 중 '영적', '영성', '성령', '영'이라는 단어들은 전부 선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들이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하시는 사역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말씀의 주권을 가지고 명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아들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주관하시며 시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를 가리켜 신학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가 바로 '영'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의 모든 성품(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성(靈性)'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한문으로 '신령 영'자와 '성품 성', '마음 성', '성질 성' 자로 하나님의 성품, 마음 또는 하나님의 성질을 말한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참 선인 사랑이다. 이 사랑의 능력이 바로 파워(Power)요, 다이내믹(Dynamic)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을 통하여 생명을 창조하시고, 살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3. 영성과 실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다. 우리는 다만 그분(성령님)을 내 속에 모셔 들여 그분의 성품 안에서 실존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활할 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간섭을 받게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뿐이다. 우리의 본분은 오직 그분의 자녀로서 전능자요, 능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며 그분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를 맞아 갖가지 모양의 장식품들과 작은 전구들로 성탄트리를 아름답게 장식해 놓았다고 하자. 그런데 밤이 되었는데 달아놓은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트리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는 크리스마스트리에 불과하다.

영성은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오는 것같이 영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사랑이며, 생명이다. 그러므로 영성 회복은 약속대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해진다.

하나님과 동행의, 인, 신 실현(마 23:23), 창 5:22-24, 행 2:25, 교회 본질 회복 성막 5단계 의미 회복 구원의 서정 출 26장, 히 9:10, 영성 회복, 하나님의 성품 회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 22:37-47, 성령으로 거듭남, 요 3:5,

[영성의 방향과 비전]

▶설명: 실존적 믿음생활을 통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룩하여 실현시키고자 함(마태복음 6:33).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요한계시록 2장 강해(14)

성도들의 최고의 상급인 첫째부활의 영광

금촛대 교회가 아니면 7년 대환란 날에 다 넘어져

장한국 목사
개혁총회 총회장
주사랑교회 담임

2절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3절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일반적인 신앙의 행위·수고·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금촛대 교회라는 것을 1초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금촛대 교회의 행위·수고·인내를 알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내는 소망이 있으므로 참는 것입니다. 금촛대 교회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졌나요? 재림 주를 맞이하는 것에, 그의 신부가 되는 것에 소망이 두어졌습니다. 신랑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 즉 부활체인 주님 옆에 우리도 부활체로 서는 것이 금촛대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최고의 상급인 첫째부활의 영광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문화에서는 여자가 지아비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자의 신분이 정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남편이 유명하고 훌륭하면 그의 부인은 자동적으로 유명한 남편의 신분과 똑같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요 실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남편이 됩니다. 참된 남편을 그림자 남편으로 인해 팔아먹고 그림자 남편으로 전심전력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결국 그림자 남편으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도서에서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촛대 교회는 주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또 성도 자신들의 영광이 재림 주님의 영광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참고 죽음 앞에서도 인내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촛대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소망 아래서 그 진리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자들을 계속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수고" -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여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그 삶을 영 안에서 경험해 보셨나요? 그 삶은 시시하거나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할 때 하늘나라에 한량없는 영광이 계속 자신의 몫으로 더해집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끝없이 더해갑니다. 금촛대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녹아져 버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는 이러한 진리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일반교회는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구제와 복지사업을 펼치면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천상의 산도 홍수에 잠겼습니다(창 7:20). 오늘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가 천상의 산과 같은 것인데, 이들의 믿음도 앞으로 있을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 날에는 홍수에 잠기듯 멸망하고 말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잣나무로 된 방주 즉, 첫째 부활진리로서 목을 내 놓고 순교할 신앙으로 세우는 금촛대 교회가 아니면 7년 대환란 날에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제2장 사도영성 운동의 성경적 기초(11)

1. 사도영성 운동의 성경적 개념

홍항표 목사
사도영성신학원장

첫째 미스바운동은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로 난국을 타개하려는 전민족적이고 전국가적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운동이다 둘째 니느웨운동은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선교하는 영적부흥운동이다 니느웨영성운동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니느웨백성들이 회개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멸망 받을 수밖에 없던 성읍이 구원을 얻었음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었다.

셋째 요시야왕영적부흥운동은율법을통해서전국민을회개시키는신앙적 각성운동이다. 요시야왕 640-609.B.C)은 그의 아버지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정책들을 반대로 뒤집어 놓았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가운데는 우상들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성전에서 축출시키는 일 종교적으로 매음 행위를 하던 집들을 파괴하는 일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의 폐지 벧엘에 있던 산당과 제단을 폐지하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업무집행을 하게 한일 그리고 유월절을 축하하는 일들이 포함되어있었다.

요시야왕의 종교개혁은 실로 침체일로에 있던 유다의 신앙을 회복시킨 운동이었으며 이제까지 우상숭배에 몰두해있던 종교적인 타락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전 국민적인 회개운동을 일으킨 놀라운 신앙각성운동이었다. 이러한 일대부흥운동은 순전히 율법서성서의 발견과 그 감화에 의함이었던 것임을 기억할 것이다(왕하22:1-23:25).

넷째 에스라부흥운동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한대 사경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 에스라는 레위자손 아론의 16대손으로 스7:5) 시드기야왕 때 대제사장이던 스라야의 아들이요 모세 율법에 정통한 학사겸 제사장 사도영성운동의성경적기초 37이었다. 에스라의 신앙운동은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성전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백성들이 이를 듣고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다(느8:1-9).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고난 중에 신앙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가운데 빠져 자포자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소생하는 환상을 보게 하고 막대기 두 개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는 명령을 통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백성들을 위로하고 신앙과 소망을 갖게 했으며 남북으로 갈라져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 멸망한 이스라엘민족이 하나로 통일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갖게 했다(겔37장.

이상에서 살펴 본 구약성서의 신앙영성운동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신앙을 각성케 하며 소망을 주었던 것이다.

2) 신약의 영성운동 / 세례요한의 영성운동

신약에서의 영성운동은 세례요한의 '영성회복운동'으로부터 시작된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던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상태가 계속 되므로 선지자와 서기관들에 의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각 회당에 모여 나름대로 교육을 지탱하였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의 소리는 이제까지 침체되어있던 신앙을 일깨워주며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불러 넣어주는 회개운동이 되었다 그러므로 주의길을 예비하던 세례요한으로부터 영성운동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메시아 활동의 길을 닦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고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셨다. 세례요한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잠자던 민중의 신앙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다(마3:1-12; 막1:1-8; 눅3:1-20; 요1:15-34).

〈다음호에 계속〉

"일하며, 배우고, 선교하는" 디모데 로마선교 아카데미 2기 교육생 모집

한평우 원장

■ 취지 및 1기 현황

디모데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디모데 로마 선교 아카데미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지인 이태리 로마에서 일정 기간 공부하며 일하고 선교하는 자립형 단기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로마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신앙의 역사를 배우고 성지를 가이드하며 전공에 따라 유럽의 열린 교육의 시스템에서 공부하여 디모데와 같은 영적4세대를 이끌 다음세대의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황하며 고뇌하는 이 땅의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할 가장 효과적이며 지혜로운 선교 프로그램이며 어떤 유학 및 언어 연수와 전공 기술 연수보다도 뛰어난 유익하고 적합한 신앙적, 현실적 프로그램입니다.
제1기 10명의 청년이 (남5명, 여5명) 현재 예비과정 7주차 훈련을 즐거움과 자유함으로 공부하며 통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음악, 미술, 각종 기술을 전공하며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안고 조금씩 로마로 향하고 있고 2월 초에 본 과정을 위해 로마로 출발 합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 28일 디모데 선교회 유홍준 선교사

■ 2015년 12월 28일 디모데 선교회 유홍준 선교사

1. 기간: 2015년 12월28일-2016년 1월 31일 까지

2. 장소:
▶ 좋은 이웃 교회(예장 합동, 일산 백석역)-예비 과정 (4개월)
▶ 이태리 로마한인교회(선교관 및 교육관)-본 과정(6개월)

3. 수업:
▶ 매주 토요일오전11시30-오후4시까지(예비과정:16주, 본과정:24주-로마)

4. 과정 및 과목:
▶ 2016년 2월 첫 주 예배과정 시작,
▶ 2016년 6월중 이태리 로마에서 본 과정 시작
▶ 예비 과정-이태리어, 창조 호흡의 찬양 회복, 리더십, 역사등 특강
▶ 본 과정-이태리어, 영어 성경, 로마사, 선교학등 특강

5. 대상:
▶ 만18세 이상의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의 자녀

6. 수업료 및 경비:
▶ 예비 과정- 월 30만원
▶ 본 과정- 월 100만원(수업료 및 숙식)
항공료 및 비자 비용은 별도

7. 과정 후 진로:
▶ 이태리 및 유럽의 각 학교로 전공 진학, 로마 성지 가이드로 자립, 귀국 등

8. 문의 및 상담:
▶ 디모데 선교회-유홍준 선교사(010-9070-5921)
▶ 좋은 이웃 교회: 070-8814-2739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로 340-38 비잔티움 1단지 207-210호

＊ 상담 면접 후 접수 ＊

■ 靑松 건강칼럼 "크리스마스 이야기"

성탄절(聖誕節) 이야기

박명윤 박사
서울대학교 保健學博士會 고문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2015년 성탄(聖誕)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축복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념일인 크리스마스(Christmas)는 그리스도(Christ)의 미사(mass)를 의미한다. 신약성서(New Testament)에는 마리아의 처녀 회임(懷妊)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은 3세기에 들어와서 행해졌으며, 초기에는 그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서 1월 6일, 3월 21일(春分), 12월 25일 가운데 어느 하루가 선택되었다. 로마교회(서방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본격적으로 축하하게 된 것은 교황(敎皇) 유리우스 1세(재위 337-352)때였으며, 그리스교회(동방교회)는 379년부터 이를 따랐다.

대영제국(大英帝國, British Empire)의 위광(威光)이 가장 확대된 시기인 19세기 중엽에 크리스마스가 부활하였다. 새로운 크리스마스에서는 이웃사랑, 자선(慈善)이 중시되고 종교심의 부활에 의한 종교적 측면의 보정이 행하여지면서, 과거의 화려한 축제의 관습이 빛을 더했다. 크리스마스트리, 산타클로스, 카드, 캐럴(carol), 선물, 디너(正餐) 등 오늘날의 크리스마스가 이때부터 정착되어 함께 축하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가 되었다.

거룩한 아기 예수의 탄생인 성탄은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임하는 날이 성탄절(聖誕節)이다. 기독교인은 성탄일을 앞둔 4주간을 대림절(待臨節, Lent)로 지키는데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자 준바하는 기간이다. 즉,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고대하면서 애타는 기다림이 있어야 성탄의 기쁨을 체득할 수 있다.

〈하늘에는 영광(榮光), 땅에서는 평화(平和)〉 누가복음(Luke) 제2장 14절에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라고 기술되어있다.

한국 및 세계의 평화지수(平和指數)는 몇 점?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 WPI)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WPI는 유럽의 경제 위기, 아랍의 봄 파동과 정치적 격변 등이 큰 영향을 미쳐 67.4점으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평화지수(WPI)는 세계평화포럼이 2000년부터 세계 143개국의 평화 수준을 정치, 군사, 외교, 사회, 경제 분야 통계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해 100점 만점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화 수준은 72.9점으로 51위를 기록하여 전년도보다 네 계단이나 떨어졌다. 한국의 군사·외교적 평화 수준은 다소 높아졌지만, 정당 간 갈등 표출 등으로 국내 정치 분야의 평화 수준은 대폭 낮아졌다. 북한의 평화 수준은 114위를 기록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은 평화와 화해, 용서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염수정 추기경(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은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의 기쁨과 축복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특히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 곳곳에서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함께하시기를 빈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온유와 겸손, 섬김과 낮아짐, 희생이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고 어려운 이들을 보듬어, 희생과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이 세상에 가르쳐 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서로를 마음의 온기로 대하면, 갈등과 폭력을 벗어난 공감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원불교 교정원장 한은숙 교무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이 이 시대에 희망의 등불로 밝게 빛나 불화와 갈등, 반목이 사라지고 전쟁이 멈춰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이룩되길 염원한다"로 말했다.

크리스마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산타클로스(Santa Claus)는 생전에 많은 선행(善行)을 베풀었던 가톨릭 성인(聖人) 니콜라스(Saint Nicolas, 270-343)에서 유래했다. 니콜라스 성인의 전설이 세월을 거듭하며 변형되었으며, 크리스마스 때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에게 친숙한 빨간 옷을 입고 흰 수염을 기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미지는 1935년 미국화가(畵家) 헤든 선드블롬이 코카콜라 광고용으로 그린 그림에서 비롯됐다. 그 이전에는 어린이들의 수호천사(the patron saint of children)인 성 니콜라스 주교를 모델로 한 홀쭉하고 창백한 캐릭터였으며, 선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기(幼兒期)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의 지침으로 작용한다. 이에 심리학자들은 크리스마스 때 산타로부터 선물을 받곤 했던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이 평생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므로 산타를 믿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의 동심(童心)은 지켜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필자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에 근무할 당시인 1960-80년대는 크리스마스카드가 유행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UNICEF 카드를 구입하여 성탄절과 새해 연하장으로 사용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카드 발송은 연말행사였다. 1980년에는 12월 10일부터 한 달간 우체국에 쏟아진 연하우편물이 1억6300만통으로 추산됐다고 한다.

크리스마스카드의 기원은 1843년 헨리 콜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장이 편지 쓰기에는 너무 바빠서 카드 1000장을 만들게 한 뒤 앞면에 축제(祝祭) 장면 삽화를 넣고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o You'라는 인사말을 인쇄해 보낸 것이 기원이 됐다.

크리스마스카드를 넣은 봉투에 '크리스마스실(Christmas Seal)'을 붙여 보내곤 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결핵(結核)을 퇴치하기 위해 헌신한 캐나다 선교사/의사 셔우드 홀은 1934년에 '아기를 업은 여인' 그림을 넣은 크리스마스실을 발간했다. 홀은 결핵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황해도 해주에 구세결핵요양원을 짓고 운영하였다. 크리스마스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결핵 환자 치료를 돕기 위해 발행되고 있다.

결핵(Tuberculosis)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8-19세기 유럽에서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유행했다. 당시 사람들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건강이 나빴고, 또한 작업 환경이 좋지 않은 공장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급증하였다. 결핵은 공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공장, 학교, 군대 등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모인 곳에서 발병이 잦았다.

항생제(抗生劑)가 20세기에 개발되지 전까지는 결핵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허약할수록 결핵에 쉽게 걸리기 때문에 잘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공기 좋고 물이 맑은 산이나 해변에 결핵요양원을 짓고 환자들이 요양을 하면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었다.

결핵균(結核菌, Mycobacterium tuberculosis)은 독일의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Robert Koch, 1843-1910)가 1882년에 처음으로 발견했다. '세균학(細菌學)의 시조'로 불리는 코흐는 결핵균 발견에 이어 1885년에는 콜레라균을 발견하였다. 베를린대학 코흐 교수는 결핵 치료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1890년에 투베르쿨린(tuberculin)을 창제(創製)하였다. 지금도 '투베르쿨린 반응'은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결핵에 걸렸는지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코흐는 결핵균을 발견한 공로로 1905년 노벨상(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협심증으로 1910년에 사망하였다.

그 후 결핵의 치료약들이 개발돼 결핵치료에 큰 발전을 이루었으나 항생제에 내성(耐性)을 가진 새로운 결핵균들이 출현하여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전 세계에 1,200만 명의 결핵환자(유병률 169명/10만 명)가 있으며, 사망자는 연간 90만 명이 넘는다. 또한 연간 86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신환자의 약 3.6%는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보고 되고 있다. 감염성 질환인 결핵의 80-90%는 폐에 손상(폐결핵)을 주지만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발생한다.

우리나라 결핵 사망자수는 2,364명(2011년)으로 인구 10만 명당 4.8명꼴이다. 이는 일본 1.7명, 스위스 0.22명, 미국 0.13명 등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가운데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등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위생과 의학 수준이 높아졌으나 결핵은 아직도 건강에 큰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박자 건강" 긍정적 사고(55)

"생활양식의 변화로 질병 극복하고 삶의 원동력 축적"

황성주 박사

질병이나 반건강은 당신의 생활을 일신시킬 수 있다. 질병은 인생행로의 정지표시가 아니라 방향표시이다. 질병은 거대한 생의 흐름이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는 경고등이다. 많은 환자들이 의사를 찾는 이유는 병을 고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다. 환자의 가장 깊은 욕구는 대화이다. 상담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는 생활을 바꾸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견지해 온 삶의 양식에서 탈피하고 싶은 것이다. 자극없이 내적인 충동에 의해서만 생활양식을 바꾼다는 것은 보통사람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질병이나 반건강은 불건강한 생활양식을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도록 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심한 기관지염 때문에 담배를 끊은 사람, 지방간으로 진단 받은 후 심한 기관지염 때문에 담배를 끊은 사람, 지방간으로 진단받은 후 술을 끊은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인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건강의 씨앗을 심고 키웠을 때 그 결과는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다. 질병이나 반건강을 건강의 기회로 이용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대이다.

세계사의 인물 중에는 자신의 치명적인 질병을 세계정복의 원동력으로 이용한 극단적인 예가 있으니 그가 곧 로마의 초대황제 줄리어스 시저이다. 그는 타고난 허약체질에다가 항상 두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게다가 충병인 간질병까지 있었으니 열등감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품위가 심하게 손상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한다.

그러나 그는 아픈 것을 핑계로 무사안일에 빠지지 않고 군무을 지병에 대한 치료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장거리의 심한 행진을 마다하지 않았고 항상 노천에 살면서 물밀듯 밀려오는 피로를 인내하며 병과 싸워 심신을 단련했다. 이러한 행동양식은 자신의 신체적 연약함을 극복하려는 불굴의 의지와 간질병이라는 불치의 병을 무시하려는 보상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질병은 몸과 마음의 휴식을 요구하는 경고장이기도 하다. 육체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질병은 삶의 원동력을 축적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또한 자기자신과 이웃의 높은 기대감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쉴새없이 뿌렸던 불건강의 씨앗으로 인해 질병이나 반건강이 현실로 나타난 이상 이제 이러한 원인제거와 아울러 총체적 건강향상을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인생행로의 전환, 생활양식의 변화를 인체의 요구에 순응하라. 질병이라는 이름의 등대, 당신의 생활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황성주 박사"3박자 건강" 중에서

유순임 목사, 민족복음화여성본부 총재 취임

여성들이여! 영계의 혼탁한 현실을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자

(사) 민족복음화운동여성본부 유순임 총재 취임감사예배가 지난 21일 11시 반석침례교회(김대중 목사)에서 열렸다.

우정은 목사(해외부총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이길자 목사(상임부총재)의 환영사, 대표회장 임은선 목사가 대표기도를, 수석상임회장 김의경 목사는 성경봉독(요엘서 2장28~29)하고,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총재는 유순임 목사를 민족복음화여성본부 총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여성 총재로 세우셨다면서 민족복음화를 위해 다시 한 번 이 땅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춤거리는 한국교계가 부흥할 것을 믿는다며 전언했다.

이어 총재 유순임 목사의 취임식에서 축하 및 취임패 전달, 한기총 명예회장 오관석 목사, 교회사역연구원원장 고승혁 목사의 격려사, 소망법무법인 대표 손평업 목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정인찬 박사, 남북조찬기도회 상임대표회장 김윤기 목사, 예총연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전농립부장관 김영진 장로(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대표), 이혜훈 의원(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각각 축사했으며, 김정숙 목사(상임부총재)의 축시낭독과 사무총장 윤 희 목사의 광고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사)민족복음화운동 여성본부 총재로 취임한 유순임 목사는 '오랜 세월 긴 어둠의 터널에 밝은 빛을 비쳐주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드려 기도하던 여종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 되어 모이게 하시어 주님의 그 사랑 전하도록 민족의 복음 전하는 자들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하다"며 "이제 여종들이 하나 되어 영계의 혼탁함과 이단, 그리고 아픈 현실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일하도록 부르셨으니 드보라처럼 쓰시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향한 연합의 목소리를 예수님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며. 이제 출발의 발걸음에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며 이 땅의 평화와 행복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실 줄 믿는다"면서 여성본부 총재로서 앞으로의 주어진 사역에 있어서 포부를 밝혔다.

CTS, 사랑의 쌀로 이웃사랑 나눔 실천

20주년 기념 쌀 화환 1,130KG 동작구에 기탁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21일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에서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갖고, 지난 1일 창사 2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진행하면서 받은 1,130KG 상당의 쌀 화환(20kg 17포, 10KG 65포, 8KG 2포)을 동작구에 기탁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기쁜 성탄절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사랑의 쌀을 통해 희망의 복음이 함께 전달되기를 바라고 새해에도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귀한 나눔으로 따뜻한 연말연시를 선물해준 CTS에 감사드린다." 며 "CTS와 함께 지역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TS가 동작구에 기탁한 쌀은 동작구청 복지재단을 통해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차상위 계층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며, CTS는 앞으로도 섬김과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어떤 유행

옛것 예찬론을 펼치는 것이 문화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편하고 발전된 것이 옛것만 못하지도 않다 옛것을 고집하거나 새로운 것만을 찬양하는 것 어느 한쪽이 결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옛것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은 향수 때문은 아닐까? 옛날에는 걸어 다녔다고 지금도 걸어서 한양을 가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시대에 향수에 젖어 불편함을 감수하며 산속에서 온고지신을 부르짖고 옛것이 좋다고 고집스럽게 사는 이들을 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최고의 문화와 환경을 누리면서 각종 혜택을 누리며 가는 이들 또한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연과 사정과 아픔들이 숨어 있기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합리화하거니 타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성립되나 보다

색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대에 벨비아(슬라이드 필름)로 산뜻한 사진을 즐기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을 고집하거나 모노(흑백)스타일이 깊은 맛이 있다고 예찬을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이 두려움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본다.

후지크롬에서 벨비아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단다. 찾는 사람이 없고 필름 이상으로 발전하는 IT 기반의 편리함과 표현력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필름의 향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이 시대에도 마치 필름으로 만드는 작품을 고집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진가라고 자위하는 모습에서 상투와 갓을 쓰고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인터넷으로 생산 중단된 필름을 구하기 위해 땀 흘려 뒤지는 아이러니함도 본다.

LP판 예찬론을 펼치는 음악애호가들도 깨끗하고 맑은 음질보다는 잡음 섞인 소리를 즐기는 것도 역시 향수의 자극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잡음 없는 최고의 음질과 아름다운 색상의 사진을 즐기는 신세대들이 새로운 느낌을 얻기 위해 노이즈 있는 작품을 찾는 것이 아날로그가 월등히 좋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는 세상에서 나만이 희소가치를 소장하고 누리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흐르는 물길은 환경을 지배하지 않는다.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잠시 중단시키는 몸부림일 뿐 세상은 순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경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전도서1:9-10)"라는 말씀을 곱씹어 본다.

한국교회 턴업운동

수정교회 1127명 성도 동참 후원키로

한국교회연합이 제5회기 들어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공언한 2016년 한국교회 턴업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일래 대표회장은 2016년을 추락한 한국교회의 위상과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한국교회 턴·업(Turn·Up) 운동의 원년으로 삼아 한국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 1만여 교회와 성도들의 전폭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조일래 대표회장은 가장 먼저 지난 27일 주일에 자신이 담임하고 있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수정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구상을 설명하고, 기도와 후원동참을 요청해 주일 하루에만 약 1127명의 장년 성도들이 후원약정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서(유치부~고등부)는 제외한 집계여서 전체 성도들의 동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정교회는 이날 각 성도들이 매월 1천원에서 1만원까지 후원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한국교회 턴업운동에 기금이 모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일래 대표회장은 후보정책발표회와 총회 소견발표, 임원회,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에서 한국교회 턴업운동으로 재정이 확충되면 기독인 각계 전문가 씽크탱크그룹을 모아 사회발전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한국교회가 기독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와 국회, 정부, 언론, 산업, 교육, 종교, 통일 등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한국 사회 발전과 성숙에 구체적으로 기여토록 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

한국교회연합은 이같은 동참 분위기를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회원교단 총회장 및 사무총장(총무)에게 "한교연 턴업운동 지원을 위한 후원약정서" 발송을 알리는 양해공문을 보내기로 하는 한편 연말 안으로 회원교단을 중심으로 1만교회를 선정, 후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12월 29일 예장 합신을 시작으로 2016년 연초에는 통합, 백석, 기성, 예성, 개혁 등 주요 교단 총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한국교회 턴업운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2016 祝 謹賀新年 -

- 謹賀新年 -

☎ 게재문의 : 010-5468-6574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현교회

담임 이춘복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쉴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안식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9시
오후 11시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목원교회

담임 최순길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관
매주 금요철야기도회 밤 9시 4층 교육관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 (02)2683-2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사금열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밤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담임 홍항표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사무총장
사도영성신학신학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010-7585-1955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흥교회

원로 엄신형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한경총 증경총회장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주일예배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담임 이기웅 목사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밤 8:30

경기도 광주시 묵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용진교회

담임 이상중 목사

주일예배안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우) 5535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원구억2길 15-5
전화 : 063)244-2374 010-9696-6377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민규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예배 저녁 7시0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용숙 목사 (우슬초)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곽순종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강릉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최낙헌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6-12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장 로 : 송두현, 박성현
장립집사 : 강정구, 황규형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충남 공주시 일락산2길 6-1(봉황동)
☎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독자 제위께

본 신문사와 인터넷신문 JTNTV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JTNTV방송은 선교비 및 광고비와 구독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48,000원은 우편요금과 종이 값에 지나지 않 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본보와 JTNTV인터넷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주신 모든분들께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시지 않은 독자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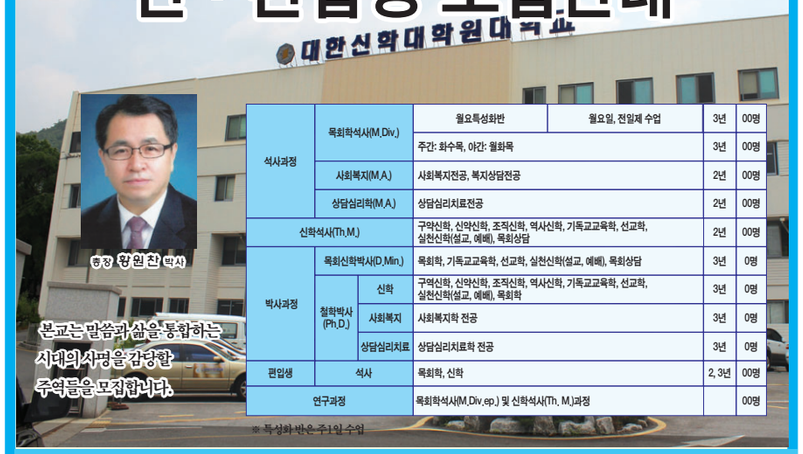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110-003-518810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용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j@naver.com

2016년
http://www.dtu.ac.kr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신 · 편입생 모집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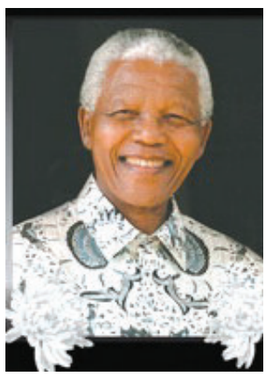
석사과정	목회학석사(M.Div.)		월요특성화반	월요일, 전일제 수업	3년	00명
			주간: 화수목, 야간: 월화목		3년	00명
	사회복지(M.A.)		사회복지전공, 복지상담전공		2년	00명
	상담심리학(M.A.)		상담심리치료전공		2년	00명
신학석사(Th.M.)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설교, 예배), 목회상담		2년	00명
박사과정	목회신학박사(D.Min.)		목회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설교, 예배), 목회상담		3년	0명
	철학박사(Ph.D.)	신학	구역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설교, 예배), 목회학		3년	0명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전공		3년	0명
		상담심리치료	상담심리치료학 전공		3년	0명
편입생	석사		목회학, 신학		2, 3년	00명
연구과정			목회학석사(M.Div.ep.) 및 신학석사(Th. M.)과정			00명

※ 특성화반은 주1일 수업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0
TEL 031-470-3333 FAX 031)473-5947
입시본부 031) 470-3327(010-2419-1407)
http://www.dtu.ac.kr

〈UN재정〉 넬슨 만델라의날기념 및 제3주기 국회추모식 거행

정계 · 교계 · 인권 · 시민사회 등 각계지도자와 시민 등 500여명 참여 성료



지구촌 평화와 민주화. 정의.인권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평화의 사도 남아공전.대통령넬슨.만델라의 제3주기 추모식"행사가 12월 28일(월)오전7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계.정계. 인권.시민단체 등 각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3년 전 넬슨.마델라 서거당시 국회에서 여.야의원과 교계대표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일해 온 각계 지도자들이 긴급히 모여 지구촌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남아공의 넬슨.만델라의 삶과 신앙을 오늘에 이어가기 위해 매년 "UN/제정 넬슨.만델라의날 기념 및 국회추모위원회(상임대표:김영진.농림부장관)"을 상설화 하기로 하고 영결식을 거행한 후 올해로 3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이날의 국회추모행사는 정의.평화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일해 온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와"한반도평화통일국민조직위원회-사)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송기학 장로)"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소강석 목사는" 정의와 사랑이 가슴 속에 머물렀던 지도자" 라는 추모 멧세지에서"평화의 사도, 넬슨.만델라 대통령은 사랑과 정의를 입맞춤한 지도자로서 그의 희생과 고난을 자초한 헌신적 삶은 우리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이를 후세에까지 이러가는 일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하고 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은"민주화와 자유, 인권, 평화를 일구어낸 지도자로써 우리 모두 계승 발전하자"고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뜻 깊은 추모식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한평협과 우리민족교류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우리에게 넬슨.만델라의 삶과 위대한 신앙을 후세와 특히 청년.대학생들에게 일깨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어서 너무도 뜻깊고 감사하다며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국회추모식을 준비한 김영진상임대표는 기념사에서"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인권, 정의, 평화의 삶과 신앙을 오늘에 이어가기 위해 평생을 바친 아프리카의 넬슨만델라 대통령, 동아시아의 김대중 대통령, 미국의 마틴 루터킹을 기리는 국제기구 창설 준비하면서 올해 제3주기추모예배를 국회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특히 앞으로"여.야 정치권이 만델라 정신을 정치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간 만델라의 삶을 계승하는 일에 자신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특히,한반도평화통일국민문화제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김영진.황우여)는"평화의매달"수여식을 갖고 김위원장과 송기학 이사장이 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전용태 성시화운동대표, 굿뉴스 사관학교 노경남 교장, 새에덴교회 박주옥 음악목사에게 각각 수여했다.

한편, 이날 추모식의 사회는 전용태 장로 (한평협 동동대표/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대표기도는 송기학(사.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장로가 추모사에 김영주 목사(NCCK. 총무/한평협 상임고문), 감경철 한평협공동대표가 맡았고 봉헌기도 임내현 장로(국회조찬기도회 총무/국회의원), 추모의 노래 굿뉴스사관학교 학생 성가대(교장 노경남 선교사), 인사 및 광고는 장헌일 목사 가 맡았다

신년사

신년을 맞이해 하나님의 축복이 온누리에 임하시길

복잡다난했던 을미년은 영겁의 세계로 사라지고 대망의 새해의 아침이 밝아 왔습니다. 대망의 신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 땅의 온누리에 임하셔서 국가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짐으로 더욱 부강한 국가가 되기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우리 민족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국교계가 복음주의적 보수신앙으로 일치단결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반세기 동안 암울했던 이 땅에 참된 십자가의 복음의 기수로서 구령사업에 앞장서서 진리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 국내외 온 세상에 복음전파에 혼신의 노력과 헌신을 다한 지저스 타임즈 신문과 인터넷 방송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WCC의 잘못된 신학사상을 배격하여 WCC반대운동에 앞장 선 지저스 타임즈 신문사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계에 여러 신문사와 언론기관들이 있지만, 지저스 타임즈 신문은 우리 보수교단 협의회와 뜻을 같이 하여 한국교계에 큰 공헌을 한 신문사로서 한국교계에 올바른 지표를 제시해주고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어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지저스타임즈 신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고 싶은 신문이요, 꼭 읽어야 하는 신문이요, 읽어서 유익이 되는 신문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범성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금년 한해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하심이 지저스 타임즈 신문사와 신문사 가족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한국교계에 가장 훌륭한 언론기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이 새해에도 함께 하실 것

2016년 새해를 맞아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는 갈등과 분쟁, 빈곤과 소외의 아픔이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다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하신 평화와 화해를 통한 구원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도록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며, 교회가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한국 교회가 되어 우리 사회의 품격을 한 단계 더 올려놓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분열과 분쟁의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화를 화해와 연합, 그리고 일치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더욱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희망의 공동체로 자리매김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통일의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상대 목사
미래목회포럼 대표

오정호 목사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미래목회포럼은 지난 세월, 한국교회의 싱크탱크로써 한국교회의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자기갱신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연합과 개혁운동을 통해 중단없이 달려왔습니다. 더욱 더 철저한 개혁과 변화를 통해 한국교회의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화합하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신으로써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이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도록 향기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또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민족과 겨레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년사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해 아침은 찬란한 태양을 왕관처럼 쓰고 끓어오르는 핏덩이를 쏟아 놓으십시오" "새해 아침은 첫날 밤 시집온 신부가 아침나절에 혼자서도 말문이 터져 콧노래를 부르듯 그렇게 떨리는 가슴으로 오십시요"

2016년 새 해가 밝아왔습니다. 새 해는 찬란한 태양을 왕관으로 쓰고 첫 날 밤 시집온 신부가 아침이 되어 콧노래를 부르듯 소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합니다.

새 해가 되면 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해 마다 꽤 거창한 결심을 합니다. 붉은 글씨로 적어서 책상머리에 붙여 놓기도 하고 머리에 띠를 동여 매고 결의를 다져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심은 흐지부지 되고 자신의 박약한 의지에 실망합니다.

그렇게 결심과 실망을 반복하면서 새 해 결심은 점점 작아집니다.

중년을 지나서는 작은 소망은 가져 보지만 뭘 해 보겠다는 거창한 결심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작심 3일"새로운 결심이 3일 밖에 가지 않는다 해도 새로운 결심을 해야만 발전이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 축복의 소망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지저스 타임즈 독자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춘복 목사
남현교회 담임
JTNTV 신문방송 자문

謹 賀 新 年

(인천)은총 기도원

원장 노은총 목사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세계주영광부흥사대표회장)

집회 안내

◇매월 첫째 주(월~목) 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회 주관)
◇매월 셋째 주(월-목) 정기 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주관)
◇매월 넷째 주(월~목) 정기집회
매일 밤 10시 기도회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허 식 목사
경찰청, 한국경목총회 총회장

주일예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35-5 센스빌딩 4층
☎ 031) 416-8290

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 C.I.P

GDFC Church Identity Program

담임목사 김창룡(우), 상담목사 박영미(좌)

주일예배안내

주일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GDFC 본당
	치유와 회복 찬양예배	오후 02:00	GDFC 본당
	청년부 예배	오후 04:00	치유와 회복 수양관
화	성령축제 1부	오전 11:00	GDFC 본당
	성령축제 2부	오후 02:00	GDFC 본당
수	수요예배	오후 08:00	GDFC 본당
금	중보기도의 밤	오후 09:00	GDFC 본당
토	사역자 학교	오전 11:00	치유와 회복 수양관
	찬양사역자 학교	오후 03:00	GDFC 본당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예배	오후 04:00	치유와 회복 수양관
매일	새벽기도(토요일 제외)	오전 05:00	GDFC 본당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242번길 75,(관항리 390-1)
☎031) ????

경북북부 제1교도소(소장 김안식 장로) 위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으로 사역하고 있는 김안식 소장

경북북부 제1교도소는 1,300명의 수용자가 있으며, 직원 400명과 자원봉사자 130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안식(58)소장은 모태신앙이며 손녀에 이르기까지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화목한 가정이다. 김 소장과 가족은 현재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소재 포일남교회(담임목사 김영주)를 섬기고 있으며 김 소장은 장로로서 섬기고 있으며 주말부부요 가장이기도 하다.

소장 김안식 장로는 항상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한 사랑으로 교도소 내 관사에서 손수 식생활을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정년퇴직도 1년 남짓 남아있다. 소장의 정년퇴임은 만 59세라고 한다. 김안식 소장은 한국외대법대 출신이다. 형사정책은 사람들이 왜 범죄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국가가 대책을 세우고 이에 범죄자가 없는 국가로, 범죄자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형사정책이라고 한다. 즉 형사정책은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학문인데 이를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사법시험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후에 깨달은 것은 형사정책과 가장 연관된 직책이 바로 교도관이라고 했다.

김안식 소장은"교도소는 교도관이 범죄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정교화를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형사정책을 공부해 온 저는 범죄에 관한 대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첫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교도관을 선택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크리스천으로서 사법공부를 해 오면서 창세기부터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성경 자체가 범죄와 그 해결책에 대한 문제이고 구원에 관한 말씀이며, 저는 성도로서 교정공무원은 가장 좋은 직책이라고 생각하고, 31살에 교정공무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이 직책은 잘 선택한 직업입니다.

교정공무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책이기에 1987년에 교도관 7급으로 시작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근무를 했고, 이어 6급 5급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가운데 2008년 1.경주교도소 소장, 2.안동교도소장, 3.청송3교도소장, 4.여주교도소장, 5.서울남부교도소장, 6.경북북부 제1교도소장으로 2014년에 발령받아 2년 여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이면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 희망사항은 서울에서 일곱 번째 교도소장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갖는 것입니다. 교도소가 전국에 52개소가 있고, 그 중 구치소가 13개소, 교도소가 39개소이며, 형이 확정된 재소자가 오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특히 경북북부 제1교도소는 제4교도소까지 네 곳이 있는데, 이곳은 다양한 범죄자들이 입소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엄하게 다루어야 할 대상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장을 해오면서 겪은 것은 90%의 재소자는 별로 관섭하지 않아도 일괄에 따라서 잘 생활을 하지만 10% 정도는 적응을 못합니다. 이들은 다른 수용자를 괴롭게 하고, 싸우고, 직원들에게까지 유해를 가하는 등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90%의 수용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들과 휩쓸려야 하고, 같이 싸워야 하고, 같이 조사실에 불려가야 하고, 그래서 교도소는 질서 확립을 위하여 잘하는 수용자는 칭찬해 주고, 표창장도 주고 하지만, 그러나 관규와 규칙을 위반하고 법을 여기는 수용자는 반드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가해야 합니다.

저는 벌을 가하든 상을 주건 항상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슴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는 성경 말씀은 막 10:43~44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재소자를 대하건 직원을 대하건 이 말씀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재소자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벌을 줄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재소자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면서 상을 주건 벌을 주건 변화되는 확률은 있습니다. 저는 교화가 불가능한 재소자라도 포기란 없습니다. 반드시 교화가 되기까지 그들이 재기하는데 필요한 훈련과 교육으로 재활의 꿈을 갖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신우회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경북북부 제1교도소 신우회가 조직되어 예배와 기도로서 뜻을 같이 하는 회원이 30여명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저는 소장의 자격이 아닌 순수한 회원으로서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우회가 이 지역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신우회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성가대를 조직하여 청송지역 농촌교회를 순회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교회 20여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찬양을 드리고 적지만 5만원의 헌금을 드리고 옵니다. 교도소마다 신우회가 있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신우회 활동을 지원하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우회가 하는 일은 재소자 누구를 대하건 항상 섬기는 자세로 돌아보면서 교도소 사역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물론 재소자들까지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34년 된 낡은 교도소를 리모델링하여 현대식 시설로 바뀌었다.

김안식 소장은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부임하면서 시설이 낡아 비가 오면 이곳저곳에서 비가 세는 곳을 점검하고 체크하여 정부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지원받아 낡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교도소가 새롭게 되었으며, 13개의 낡은 화장실 중 10개를 현대식 수세식화장실로 바꾸었으며, 단 예산부족으로 3개만 남아있습니다. 또한 아주 낡은 예배당도 리모델링하여 교회가 깨끗하게 되었으며, 직원들과 성도들이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보람을 느끼며 평생 기억에 남을 곳입니다.

지난 2년여 간 감동적이며 잊지 못하는 것은

특히 교화활동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성교육과 검정고시, 학사고시 가 있는데, 많은 재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2015년 올해 7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학사고시에 2명이 합격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2년 동안의 결실입니다.

또한 1년 3회 편지 쓰기 대회를 열어 대상을 선정하여 상을 주는데 처음에는 불과 3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지난번 대회에는 130명이 편지 쓰기 대회에 참석하여 발표를 하는데 그 중 한 재소자는 그 많은 재소자들과 직원들 앞에서 아내에게 쓴 편지를 크게 울며 흐느끼면서 낭독을 하는데"여보! 내가 일생에 한 번 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당신에게 맛이 있는 밥도 한번 못 사주었고, 좋은데 여행도 한번 못 갖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편지인데, 이 순간 소장도 울고 직원들도 울고 참가한 모든 재소자들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년퇴임이 내년이면 1년이 남았는데 정말 보람을 느낀다는 김안식 소장이다.

한편 경기도 안양시 삼덕로 56, 주능력교회 최순란 목사의 주관으로 경북북부 제1교도소(소장 김안식 장로)를 방문하여 500여명의 재소자들이 자리를 같이 한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잔치를 가졌다. 이날 교정선교교회 유순옥 목사의 안내로 1부 예배에 최순란 목사의 인도로 소장 김안식 장로, 백운성 목사(안산임마누엘교회), 최순란 목사(주능력교회)의 찬송을 합창하고, 유순옥 목사(교정선교교회)의 특송과 꾸미오리(김창숙 단장)의 워십이 진행되었다.

이어 정기남 목사(jtntv방송 대표)는 성경 잠언 12:14절 말씀을 중심으로"생각과 행동에서 온 결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아울러 김안식 소장은 2016년 1월부로 안양교도소 소장으로 발령되었다.

신임 경찰 제285기 졸업식 개최

중앙경찰학교(치안감 박경민)는 24일 오전중강당 등 6개 권역에서 신임경찰 제285기 3,051명의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강신명 경찰청장,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해 졸업생 및 가족, 친지 등 1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행복한 나라·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딛는 신임경찰을 격려하고, 국민생활 곳곳에 뿌리박힌 불법과 무질서,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출발선에 선 미래경찰 100년의 주역인 졸업생들이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당당하고 깨끗한 경찰관이 되고자 다짐하는 장으로 진행되었다.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34)

담임목사 이 규 필
(합동보수 총회장)

예/배/시/간/안/내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영 아 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유 치 부	오전 9:00 오후 1:2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유 . 초등부	오전 9:00 오후 1:2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중 . 고등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청년 . 대학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령충만기도회	(수) 오후 7:3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시 105:1-2)

표어 :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교회(요14:27)

담임목사 장 승 현
REV. Jang Sung Hyun

◈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
1. 마음을 다하고 2. 성품을 다하고 3. 힘을 다하여 (신6:5 막12:30)

예/배/시/간/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오전 9:00
주일 오후	오후 2:00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4시
삼일 예배	수, 오후 7:30	성가대/청년회	주일오후 3:00
금요구역(목장)	오후2시,3시,8시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20

◈ 선교 후원하는 기관 및 단체 ◈
국민일보, cts, 새희망씨앗, 선의장로교회
장애인선교회, 서산중앙병원, 현대종교

·협동목사 : 김제홍
·협동장로 : 이남복
·전 도 사 : 허삼성
·지 휘 : 장성진 반주/피아노 . 강덕연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학로 362-6호 홈피 http://pyeong-an.com
TEL 교회 : (041)356-0644 E-mail:sunghyun732@hanmail.net

2016년도 전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회지도자전문과정 입학안내

* 특전
1. 총장명의 증서
2. 장학혜택(성적 및 공로자)
3. 연세총신 신대원 2년과정으로 인정함
4. 연세총신과 연계교육후 연세총회에서 목사안수함

* 입학안내
• 모집기간 / 2016년 1월 ~ 3월
• 개 강 일 / 2016년 3월 10일(목) 오전 10시(주간) 오후 5시 30분(야간)
• 교육대상 / 평신도지도자반 : 세례교인 이상
교역자반 : 신학생,전도사 강도사 목사(사모)
• 교육시간 / 주간 : 매주 목 (오전10:00-오후4:00)
야간 : 매주 목 (오후5:00-오후9:00)
• 교육비용 / 45만원
• 등록안내 / 국민은행 220401-04-015162
(예금주/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 교 수 진 / 김영욱 총장외 과목별 유명 전문강사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증명사진2매,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장소 / 인천분원 (학기2회/본교에서 강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83-3(진영빌딩2층)
(인천시청후문, 인천시청 지하철3번출구 20미터)
• 접 수 처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지원팀
476-75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151-1
인천분원/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83-3(진영빌딩2층)
• 문 의 처 / 교학지원팀 : 031-770-7822~3
팩스) 031-770-7828
분원사무국 : 070-7518-0651, 010-3641-0685

ACTS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영광교회 이웃초청 성탄축제 열려

250여 명의 이웃들 초청 온 교우들과 함께 찬양과 말씀, 꽁트와 성극 등 축제

"기쁘다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라는 찬양과 성탄트리가 환하게 반짝거리는 종탑을 보면서 많은 이웃이 초청을 받고 참석하여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축제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담임 조강수 목사)는 24일 1부 예배에서 조강수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로 마친 후 2부 성탄전야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유진, 이주영, 하원재 등이 사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1. 오프닝 주일학교, 2. 댄스 유치부, 3. 댄스 유년부, 4. 꽁트 학생부, 5. 댄스 청년부, 6. 탈춤 학생부, 7. 성령충만365 찬양, 8. 성극 청년부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초청을 받은 이웃들과 성도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함께 찬양을 부르며 손뼉을 치면서 다과를 나누는 등 성탄전야에 축제의 장을 이루었다.

25일 오전 11시 성탄감사예배가 담임 조강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임청수 장로의 기도, 눅2:10-11절 말씀을 합동하고 조강수 목사는 부목사와 장로들을 등단케 한 후 케익에 촛불을 점화하고 '생일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생일축합니다'라고 축하송을 부른 다음 촛불을 소화한 후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푸짐한 선물교환과 특별히 마련된 식사와 과일을 나누면서 덕담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2015년 성탄절을 끝으로 아쉽지만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편 조강수 목사는 지난 29일 밤에도 본 교회에서 학생들의 주최로 "다시 일어나는 세대 PRAYER MOVES MOUNTAINS, 2015. 제18회 예수님을 빛내는 축제(이하-예빛제)"를 개최하고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회장 이희선, 회계/서기 성 결, 주진우군의 공동 사회로 열린 예빛제는 많은 성도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한일 외교부 장관들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환영하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만에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였던 위안부문제에 대해 양국이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결단을 내리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격려한다. 이번 합의가 양국이 상생과 도약의 미래 50년을 만들어 나가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 것과 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은 외교적 합의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대한 배상의 외교적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합의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답보상태를 거듭해 온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풀어갈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결과인 것이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합의에 대한 이행이다. 일본 정부가 합의를 어떻게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이 될 수도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원한다. 이는 번복할 수 없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본군의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을 인정하고 절대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일 양국은 진심어린 마음으로 피해 할머니들에게 다가가기를 바라고, 합의문서가 문제의 종결

이 아니라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위로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일 양국이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화합하는 한일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5년 12월 2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피종진 목사 1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02)3411-9191
F:02)401-7770
F:02)3411-9111

1(금)	철야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2
3(주)	오후	구리 성민중앙교회(강영준 목사) ☎ 010-9260-1091
4(월)	오후	서울 온누리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4(월)~6(수)		포천 로뎀교회(여태원 목사) ☎ 010-4758-8589
7(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8(금)	오전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대표회장 장향희 목사) 장소: 팔레스호텔 그랜드룸
8(금)	저녁	남양주 아가페민족기도원(원장 최경애 목사) ☎(031)1513-3727
9(토)	오전	크리스천언론인협회 크리스천다이제스트(발행인 고정양 목사) ☎ 010-6642-4131
10(주)	오후	남양주 영광축복교회(김영일 목사) ☎ 010-4055-0675
12(화)	저녁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의 밤 ☎(02)365-0631
13(수)	저녁	대구 갈렙세계선교교회(최찬교 목사) ☎ 010-6777-1412
14(목)	오전	연세대학교 목회자부흥협의회
14(목)	저녁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함덕기 목사)☎(031)947-0091 주최 : 기도치유아카데미(대회장 장요한 목사
15(금)	오전	서울 여전도회연합회관(주최: 세계밀알부흥사협의회)
15(금)	오후	서울 극동교회(손길성 목사) ☎(02)501-0691
15(금)	철야	인천 숭의감리교회(이선목 목사) ☎(032)880-8000
16(토)	오전	서울 벧엘교회(오정희 목사) ☎ 010-4813-2227 주최 : 21C지구촌복음화부흥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시중 목사)
16(토)~17(주)		남양주 영광축복교회(김영일 목사) ☎ 010-4055-0675
17(주)	오후	서울 강남임마누엘교회(장요한 목사) ☎ 010-3917-0616
18(월)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함덕기 목사)☎(031)947-0091 제195차 해외성회(195th Overseas Assembly)
18(월)~19(화)		캄보디아(Cambodia) 쯔레이중앙교회(준비위원장 이부중 선교사)
20(수)~21(목)		캄보디아(Cambodia) 씨엠립중앙교회(준비위원장 이부중 선교사)
25(월)~28(수)		군산 예수능력교회(김정빈 목사) ☎ 010-9679-8477
31(주)	오후	서울 예원교회(김미라 목사) ☎ 010-5574-9372
31(주)	저녁	김포 한빛교회(김선일 목사) ☎ 010-4737-0691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2016년 1월~2월 집회일정

강사 조강수 목사
언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영광교회 담임목사

謹賀新年, 영광교회 축복대성회에 초청합니다

- 2016년 1월 4일(월)~1월 7일(목) 철원성소기도원
  장소: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산171번지
  ☎ 033)763-0661
- 1월 21일(목) 목회자 세미나 / 영광교회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36(구,가좌동)
  ☎ 032)575-1654 http://www.youngkwang.net
- 1월 26일(화)~1월 28일(목) 남인천기도원
- 2월1일(월)~2월 4일(목) 청주금식수양관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578-5
  원장 : 백효선 목사(010-5736-3004) ☎ 043-269-5211
- 2월15일(월)~2월18일(목) 주안함께하는교회
- 2월 21일(주일저녁)~2월 24일(수) 용인상갈소망교회

♥매주 금요 성령 대성회(금요일) 밤 11시부터...
초대교회의 성령과 치료의 역사로 이 땅에 신선한 성령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대성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매주 주일저녁축복예배(주일) 오후 6시30분부터
한국교회의 저녁예배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은혜가 넘치는 영광교회 주일저녁 찬양과 말씀축복이 넘치는 예배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매주 (토) PM 6:00 토요찬양예배
청년이 일어나 예수를 말하리
대상 : 청소년 청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6(구)가좌4동 4-24 ● TEL (032)575-1654 FAX 581-3723 ● http://www.youngkwang.net